“법회에서 참회하면 밝아진 자신을 만나죠”

바라밀현장

신행회의 소년원 봉사

“모든 생명 죽인 죄업 오늘 모두 참회하옵니다. 도둑질한 중한 죄업 오늘 모두 참회합니다. 사음질로 범한 죄업 오늘 모두 참회하옵니다. 거짓말로 지은 죄업 오늘 모두 참회하옵니다. 꾸민 말로 과장한 죄업 오늘 모두 참회하옵니다.”

신행회 서울지부(회장 이정렬) 주최로 3월 30일 오후 국내 유일의 여성 청소년 수용시설인 안양 소년원(정심여자정보산업학교) 법당에서 열린 정기 일요법회. 이날 법회에는 50여 소년원생이 참석해 잔잔한 목소리로 그동안의 자신을 돌아보고 있었다. 선정 · 보시 · 인욕반 등의 명찰을 가슴에 단 소년원생들은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 나겠다는 의지를 다지는 듯 목소리에 힘이 있었다.

22년 째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소년원생들과의 인연이다. 신행회원들은 두 가지를 늘 발원하고 있다. 첫번째는 소년원생들이 사회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기초적인 소양을 심어주자는 것으로, 이 때문에 이날 법회 주제도 소년원생들에게 꼭 필요한 ‘친구 사귀기’이다. 원래 나쁜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쁜 친구와 어울리다 보니 범죄를 저지르게 됐다는 것을 알게 하고 다시는 그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두 번째 소년원생들의 재기를 돕기 위해서 따스한 인간적인 유대를 맺고자 노력한다. 회원들은 법회가 끝난 후 공양을 하며 한 마디라도 더 따뜻한 말을 나누기 위해 분주하다.

“진미(가명)야, 너는 언제 나가더라?” “다음 달에 나가요.” “어느새 벌써 일년 반이 지났구나. 그 동안 잘 참았다. 나가더라도 꼭 부처님을 찾아야 한다. 앞으로는 착한 일 많이 하고….” “선생님, 그 동안 너무 감사해요. 꼭 편지 보낼게요.” “그래 꼭 연락해라.”

신행회원들은 소년원생들과 법회를 통해 맺은 인연을 사회에 나와서도 유지시키려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렇기 때문에 어엿한 직장인으로 새 생활을 시작한 소년원생들은 신행회원들의 연락처를 알아내 먼저 전화 연락을 하는 것은 물론 자신들이 도울 일이 없나 찾기도 한다. 신행회 회원인 최 대원심 보살(50)도 17년 전 법회를 통해 알게 된 한 소년원생과 인연을 맺고 있다. 소년원에서 나온 그녀는 사회복지학을 전공한 후, 현재는 대원심 보살의 어머니 병 수발을 도와주고 있다고 한다. 이렇게 신행회원들은 보시행이 나와 남을 동시에 변화시킨다고 믿고 있고 더욱 더 열심히 활동을 하게 됐다.

봉사와 수행의 공동체 신행회가 발족한 것은 지난 81년. 참선뿐만 아니라 봉사도 수행의 중요한 방편임을 강조한 영명 스님(전남 순천 신행선원장)을 만나면서부터다. 영명 스님의 법문에 감동을 받은 불자들이 하나 둘씩 스님 곁으로 모여 들었고, 그들은 보현보살을 닮겠다는 서원을 세운 후 신행회를 결성했다. 서울 법련사 청년회원이 중심이 된 불자들은 별도로 서울 지부를 만들어 22년 동안 매주 두 팀으로 나눠 안양소년원, 광명보육원 등을 찾아가 불우 청소년들을 위한 법회를 열고 있다.

강유신 기자 shanmok@buddhapia.com

◇신행회 회원과 소년원생들이 초파일 연등을 만들기 위해 종이 연잎을 비벼 만들고 있다.

소년원생들 교화 위해 22년째 헌신

보시행, 나·남 변화시킨다는 믿음에 정진

신행회 서울지부 **이정렬** 회장

“돈보다 마음 앞세운 봉사를”

“신행회가 22년 동안 계속해 봉사를 할 수 있는 힘은 돈보다 마음을 앞세우는 봉사를 하기 때문입니다.”

신행회 서울지부를 맡고 있는 이정렬 회장(45)은 20년 동안 쌓은 수행의 힘이 꾸준한 자원봉사를 하는 원동력이라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회원들 모두가 매일 아침 1시간 이상 면벽 수행, 화두 참구를 기본적으로 하면서 오후 시간을 이용해 <화엄경> 보현행원품을 독송하는 등의 공부를 한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신행회 회원들은 매년 여름 순천의 신행선원에서 3박 4일로 열리는 ‘참선 및 독송 수련회’에 참석, 자신의 공부를 점검받는 기회도 갖고 있다.

“회원들 모두 가정과 직장에서 일과 수행을 병행한다”고 자랑하는 이 회장은 그 자신도 20년 넘게 봉사를 하면서 참선수행을 하루도 거를 때가 없다.

신행회 서울지부는 올 초파일을 맞아 독경대회, 찬불가 대회, 니르바나 연주단 공연 등 소년원생들을 위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마음비추기

마구니가 선지식 되는 인연

어떤 사람이건 지금의 모습을 하고 있기까지는 수많은 과정과 곡절이 필요한 법이겠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한 사람이나 사건 때문에 현재의 삶을 살게 되는 경우가 있다.

내가 부처님 일을 하게 된 동기를 보면, 여기에도 빼 놓을래야 빼 놓을 수 없는 또 하나의 인연이 작용했다. 그 인연의 주인공은 군대 시절 함께 지냈던 목사 후보생이다. 한 내무반 옆자리에서 생활을 했던 그 목사 후보생은 독선적 시각으로 불교를 무시하고 공격했다.

따라서 나와 그 사람 사이에는 늘 갈등과 반목이 심했었다.

당시에 나의 불교에 대한 신심은 참으로 보잘 것 없는 것이었다. 할머님이 스님이셨던 탓으로 독실한 불자라고는 했지만 불교라는 글자의 뜻 하나도 이해하지 못하는 맹신자에 불과했다. 따라서 그와 언쟁을 할 때면 늘 수세에 몰린 채 무시를 당해야 했다. 얼마나 억울했는지 모른다. 어느 때 나는 외출을 나온 김에 서점에서 불교서적을 구입했다. 나도 불교를 공부해서 그의 공격에 맞서야 되겠다고 생각했다.

나는 틈틈이 불교를 공부했고 그로 인해 불교에 대해 차츰 눈을 뜨기 시작했다.

장애도가 곧 성취도라 했던가, 그로 인해 나중에는 부대 내에 법회를 조직하게 되었고 자그마한 법당까지 세우게 되면서 제대 말년에는 군종병으로 활동하게까지 되었다.

그리고 그 과정이 지금의 나를 있게 한 결정적 원인이 된 것이다.

제대를 하고 난 후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군생활 중에 만났던 그 목사 후보생이 잊혀지지 않았다.

지금은 어느 교회의 목사가 되어 있을 그에 대해 항상 궁금한 마음과 함께 일종의 그리움까지 생겨 만났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다.

그런데 작년 여름, 지하철을 타기위해 종로 3가역을 걸어가는데 어디선가 아주 귀에 익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고개를 돌려보니 이게 누구인가? 바로 그 목사 후보생이었다. 머리가 희끗해진 그가 어떤 사람과 함께 이야기하고 있었다.

반가워하는 것은 나뿐이 아니었다. 우리는 찻집에서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이야기꽃을 피웠다.

사람은 세월과 함께 변한 것이다. 그에게서 과거의 독상은 찾을 수 없었다. 그는 나를 존중했고 과거의 자기를 이해해 달라고 하였다. 요즈음 그는 내가 있는 선원에 와서 며칠씩 쉬었다 갈 만큼 부처님과 가까워졌다. 이를 두고 보더라도 현재의 모습만 가지고 사람의 만남을 평가하거나 집착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든다.

수행이란 보살의 가피로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마군의 방해로 성취되기도 하는 것이다.

적연(유마선원장)

세계 불교 여성지도자들

성일 법사 (下)

“가르침 삶 속에서 실천” 강조

성일 법사의 스승 구산 선사(송광사 조계총림 초대방장)는 항상 문호를 개방하여 누구든 만났고, 한결같이 ‘이 뭣고’ 화두로써 법문의 화제로 삼았다. 모든 이가 불성을 일깨울 수 있다는 대신심을 행동으로 보여주었으며 많은 붓글씨로써 대중에게 불연을 맺게 했다.

이러한 구산 선사의 중생교화 원력은 불교의 육(六)바라밀에서 따온 ‘칠바라밀의 생활불교’에서 엿볼 수 있었다. 송광사의 달력에는 ‘월요일은 베푸는 날, 화요일은 올바른 날, 수요일은 참는 날, 목요일은 힘쓰는 날, 금요일은 안정의 날, 토요일은 슬기의 날, 일요일은 봉사의 날’로 정해놓고 있었던 것이다.

성일 법사는 오랫동안 지녀온 습기로 인해 우리가 스스로 한계를 만든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스승이 설한 두 가지 일화를 그의 저서 <선의 원리>에서 자주 인용했다.

“첫째는 개구리의 등에 업혀가는 전갈이 강 한복판에서 개구리를 물어 개구리와 전갈이 다 죽게 되는 경우이다. 전갈은 개구리에게 물지 않겠다고 굳게 약속했지만 오랫동안 반복했던 습성을 참을 길 없어 개구리를 물고 말았던 것이다. 둘째는 코코넛 구멍 속에 들어있는 먹을 것을 움켜쥔 원숭이 이야기다. 먹이를 포기하고 놓아버리면 손이 빠져나올텐데 그것을 놓지 못해서 결국 잡히고 만다.”

성일 법사는 고해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스승의 가르침대로 계율, 선정, 지혜 등 삼학(三學)을 닦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비구니 위상이 높은 한국에서 수행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한다는 그는 삶속에서 참선을 하고 실천하는 것이 진정 자유를 얻는 길이라고 강조한다. 그녀가 참선 수행자임에도 불구하고, 이것만을 고집하지 않고 심리치료를 병행해 불자들을 가르치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서구 문화권에서는 마음을 주로 다루는 분야가 심리학과 심리치료이다. 따라서 참선과 공통점이 많은 방편을 택한 것이다. 하지만 심리치료가 종국에는 자기 중심적이고 개인적이 되기 쉬운 반면, 참선은 세상에 대해 열린 마음을 갖게 한다는 것이 성일 법사의 판단이다.

성일 법사가 남편 스티븐 배첼러와 몇몇 재가 법사들과 함께 운영중인 영국의 가이아 하우스 명상원에서는 단체 또는 홀로 수행이 모두 가능하다. ‘은자의 집’에서는 원하는 기간만큼 홀로 명상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갖추고 있다. 또 샤르팸 하우스 내에 1년 과정의 불교교양대학을 만들고 기숙사도 갖추어 놓았다.

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불교 명상을 가르치는 샤르팸의 교육과정에는 심리치료, 서양종교, 서양철학, 요가도 포함되어 있다. 기숙사에 머무는 학생들은 명상 외에도 정원에서 일하거나 사회봉사를 경험하는 과정도 마련해 놓았다.

“무언가 정신없이 바쁠 때도 우리는 하던 일을 멈추고 사랑과 자비를 줄 수 있을까?”

이것이 성일 법사가 바쁜 현대인들에게 전하고픈 메시지다.

김재경 기자

명상, 사회봉사 경험 생활에 적용

“비구니 위상 높은 한국서 수행 감사”

◇성일 법사가 지도법사로 재가자를 가르치고 있는 영국 가이아하우스 명상원.

이 시대 한국불교의 정체성과 재가불자의 나아갈 방향을 생각하는 자리입니다.

(사)대한불교청년회 부산지구 창립 37주년

재가불자 무차대회

“ 한국불교, 재가는 없다 ! ”

발 제 자
- 김용태(신라대 前총장)- 기조발제
- 각묵스님(실상사 화엄학림) - 수 행
- 곽만연(동아대 교수) - 교 육
- 최 연(중앙신도회 사무 총장) - 조 직

2003.4.19 (토) 오후 5시

부산불교교육대학 대강당 (부산불교회관4층)

• 문 의 : 051) 467-5241 사무국 • 주 최 : (사)대한불교청년회 부산지구

부산불교회관 오시는 길

• 후 원 : 부산광역시불교연합회, 조계종 중앙 신도회, 부산광역시불교신도회, BBS 부산불교방송, 부산불교텔레비젼, 대한불교신문, 불교신문, 법보신문, 현대불교신문,

수맥으로 부터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맥 · 지전류 · 지자기의 유해파로 인해 만성피로, 불면증, 두통, 목 · 어깨결림, 우울증, 악몽, 관절 및 근육통 순환기 장애등이 발생합니다. 수험생이 집중력을 상실하기도 합니다.

또 컴퓨터나 휴대폰을 사용할때 손끝이 저리거나 눈 · 머리가 아프고 얼굴에 열이 나는 것은 전자파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분들에게 **유해파를 차단시켜 건강을 회복** 시켜 드립니다.

특히 **세대주의 이름과 번지만 알면 자택 · 사무실 · 조상묘소의 수맥 · 지자기 · 지전류 유무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양택과 음택을 원격으로 알 수 있습니다.
온천과 지하수도 찾아드립니다.

- 스님들께는 실비로 차폐해 드립니다.
- 유해파 차단은 직접 현장에 가서 해 드리며 휴대용 신개발품도 널리 이용되고 있습니다.

지기진단 수맥연구가 이 기 일

☎ 053) 255-7370
011)9596-4848

살아있어서 생식입니다

건강되찾기 10년

임준규 한의학 박사
· 분당 차병원 한방병원 원장 역임
· 남원 호성 한방종합병원 원장 역임

추천서

10여년을 생식만 연구해 왔습니다. 몸을 생각하는 100% 자연식입니다. 고을빛 생식은 강원도 청정지역에서 계약 재배한 깨끗한 재료를 이용해 고을빛, 생식만의 노하우로 배합해서 생산합니다. 제대로된 생식을 원하신다면 이제 고을빛 생식을 찾으십시오. 분당 차한방병원 등에 환자식으로 공급하여 안전성과 신뢰성을 입증받고 있습니다. 제대로된 생식을 원하신다면 이제 전문업체인 ‘고을빛 생식’을 이용하십시오.

1998년 11월 4일

생식의 1석 6조

1.체질개선 2.건강증진 3.피로회복] (생식요법) 4.완전한 다이어트 5.완전식사 6.식습관 개선

이런분들에게 필요합니다

◆ 고통 없이 체중조절을 하실 분께
저칼로리 영양식으로 굶어야 하는 고통없이 체중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 아침식사(생식)는 활력의 원천
간편하게 많은 영양을 섭취할 수 있어 바쁜 현대인의 식사대용으로 최적입니다.

◆ 배변이 원활하지 못해 더부룩한 분들께
치커리 식이섬유 보강. 쾌변을 도와줍니다.

◆ 신선한 야채섬유가 부족한 분들에게
생식의 풍부한 효소와 배아, 염록소를 간편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 각종 성인병으로 식이 요법을 원하시는 분들께
생식의 고효율 에너지는 병환중이거나 회복중인 환자식으로로 좋습니다.

“(주)고을빛 생식마을”은 태어난지 10년된 정통 전문 생식업체입니다.

※ 4개월분 구입시 25% 할인해 드립니다. *1개월분 (40g × 60포)*

고을빛 생식은 단식하시는 분들께 효과적 입니다.

생식완료 현미, 메주콩, 적두, 약콩, 서리태, 율무, 보리, 차조, 수수, 옥수수, 메밀, 밀, 당근, 우엉, 신선초, 케일, 컴프리, 감잎, 뽕잎, 감, 호박, 솔잎, 다시마, 김, 구기자, 연근, 표고버섯, 인진쑥, 결명자, 결정과당, 호박엑기스 등 32종

◆ 연락처 : 02)458-0836, 017)236-0836